

권효가



[해제]

<권효가(勸孝歌)>는 길이 22자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에 줄글체로 필사되어 전하는 도덕가사이다. 작자와 제작 연대는 밝혀 있지 않는다. 작품에 나오는 사설로 미루어 편모를 모시고 있는 50세가 넘는 사람의 제작으로 추측된다. 그 내용은 부모에게 효(孝) 다하기를 교훈으로 내세워 적극 권장한 가사체 노래이다. 천지간 만물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하다 함은 오륜(五倫)을 지키기 때문이요, 그러한 삶에는 부모께의 효양(孝養)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주색에 방탕하고, 남과의 다툼을 잘하며, 붕우(朋友)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집 재산을 함부로 척매(斥賣)하는 등, 사람으로서 바르지 못함은 모두 불효임을 지적하면서, 자제(子弟)로서의 도리를 세세히 권하였다. 아울러 증자(曾子)를 비롯하여 왕상(王祥), 맹종(孟宗), 곽거(郭巨) 등 효심이 뛰어나고 효행 효도 등으로 이름 있는 고래의 인물을 무려 열네 분이나 들어 효의 본보기로 제시하였다. 노래의 외현상 언어구사 역시 부모와 효 내지는 불효와의 대응서술에 집중하여 작품의 주제성을 돋보이고 있다. ‘부모’라 한 어사의 출현만 보아도 근 80회에 이르고, 또한 ‘효’ 또는 ‘불효’ 등의 어사를 자주 거듭하는 등 유사구의 반복이 많아 내용의 중복감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가사 낭독에 별다른 거부감을 주지 아니하여 주제성을 들어낸 이 같은 어사의 관용은 이 노래의 또 한 서술상의 특징이라 하겠다. 노래의 형식상 구성을 보면 근 420구로 짜여진 장편가사이다. 3·3조와 2·4조가 각각 1구일뿐 주로 4·4조와 3·4조 율격의 혼합체이다. 그중에서도 3·4조가 약 100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권효가>는 우리나라 4·4조 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문]

이늬마리 변변차늬 선후도착 흥엇시나
부딕부딕 명명하여 쏜을바다 횡혀라
할마리 무궁하나 덕강그만 굿치노라

권효가

청춘소연 아히들아 이늬말삼 드러보소
천지지간 만물중의 귀한거시 사람이라
사람을 귀타하미 오륜으로 일너씨니
오륜을 모를진디 금수와 갓할지라
귀타하미 무어신고 부모구존 흥신사람
사군지절 고사하고 부모봉양 먼저호소
부모의게 불효하면 동기인정 어이알며
장유유서 붕우신을 안다하미 무어신고
제부모게 부효하놈 타인으게 조와하며
제형제게 불복하놈 남과별노 친압하니
인의을 어이야랴 취한거시 주석이라
지물탐취 흥난사람 천성인달 온전하며
주석방탕 흥난사람 심정인들 어질손야
한잔술 순벽석의 친흔정이 조별하고
호로밤 잠긴장의 중흔의가 형제갓다

나무집 귀흔즈제 그릇치기 아조쉽다
 저리잡기 친흔정이 장구이야 미들손야
 훈전호리 그릇치면 친흔만만 간디업고
 질옥피담 도톨적의 피초간의 수문허물
 낫낫치 지어닐제 일호스정 바이업다
 제망신은 고스하고 안진부모 욱이밋닉
 이을보와 짐작하면 친구을 스구와도
 손우익우 삼익중의 셴악을 가려니여
 중심으로 통정하고 외면으로 흐지마소
 친구라 흐난거시 오륜의 드러씨니
 옛부텀 봉우되가 소인군조 판이하다
 척척하게 조흔교정 소인간장 천협하고
 담담함미 물갓히도 군자중심 변역업다
 봉우도도 어렵거던 흐물며 이닉사람
 부모으게 효도함미 빅힝중의 웃듬이라
 부싱모욕 흐온은정 종신토록 갑조히도
 호천망극 가이업닉 부모봉양 흐난도리
 가세되로 할지라도 갈역진심 흐여서라
 부모봉양 한다하고 닉집의 업난직물
 여간가산 척미함며 동되서취 빗절니여
 진작감지 못흔후의 구초하고 욱된마리
 부모귀예 들이시면 부모마암 엇더하랴
 이을보와 싱각하면 쫓편하기 제일이라
 마음이 불평하면 진수성찬 살노가랴
 자식나아 장양하면 부모은정 안단말이
 나올두고 싱각하면 정영코도 분명하다
 오회라 우리선군 날갓흔 불초자을
 만득으로 어더시니 산히갓흔 부모은정
 여복귀히 길너씨랴 구세동몽 입학하여
 권학을 힘써할제 의홀흔 갑흔정을
 심중의 품어두고 조석으로 교훈할제
 성흔씨의 병날세라 더운날의 치울세라
 나무아히 못할세라 부모욕심 이러하여
 노를니여 꾸지시면 아든닐도 도로이
 저무지흔 어린소견 훈겁하고 민망터니
 자릭후의 싱각하니 부모마암 니알노다
 부모심중 원흔닐을 엇지하여 폐여보며
 부모싱전 중흔은정 어이하여 갑스올가

편모을 뒀시다가 병정변독 흥만니
 다산을 탕피하고 남북으로 유리할제
 흰당의 퍽발자친 어린동심 부탁하고
 구초흔 이니신명 남무집의 몸을파라
 남산의 밧철갈제 오즈가로 노리하며
 후원의 남걸할제 사모가로 실패불너
 칠팔연을 분주하여 부모봉양 엇지허리
 고비양위 망극은을 만분일도 못다감하
 소사숙수 부족하여 부모칭전 여흔이제
 만종녹이 잇다흔들 부모업씨 무엇하랴
 세월이 여류하여 썬데업난 이니나히
 오십이 다넘어서 자식나아 길너보니
 부모칭각 식로만타 실패다 이세상의
 오류이 잇것마난 부자윤신 처모르고
 형우제공 간디업고 장유유서 봉우신과
 효제우의 허난도를 아난스람 몇몇친고
 상윤픽속 허난일이 시와날이 날나가
 이세도를 칭각하면 어이안이 혼심흔가
 부모구존 허신스람 부디효양 힘써허소
 장기바독 일을삼아 부모봉양 불고하며
 지물처즈 사사하여 부모마암 쓰거씨니
 섬천형벌 중허죄의 불효허미 죄디허다
 옛사람이 치을지어 선악간의 기록허미
 후칭드런 이걸빅와 악흔힝실 다시곤쳐
 착흔스람 썬을바다 비우다가 못밧쳐도
 허우불초 면허리라 요운안인 우리사람
 인인마다 다착하며 공잉안인 지금후칭
 사람마다 성현되랴 천정을 일치말고
 힝실을 밧썬쌈가 성심디로 힘을씨면
 일신의 효제허미 구속죇츠 밧쳐가고
 허집의 효제허미 온천허가 다를손야
 허물며 이니일신 부모혈릭 바다나서
 니모의 천흔욕이 부모몸의 몸익영화된다
 어와세상 사람더라 자제도리 힝허닐이
 출입할제 먼저고코 놀노가도 방위잇다
 무사의 중흔병과 흘시의 급흔닐이
 분주동서 망조할씩 부모봉양 허난도리
 천성을 못허여도 문건을 썬을바다

극진봉양 힘써하면 출천지효 다들손야
 성현군자 효성말삼 사척유전 하여씨나
 이럴보와 칭각하면 자제도리 이아닌가
 계초명의 이러니서 관수하고 건질하여
 부모처소 드러가서 음식과 혼란으로
 온언순사 못싸오며 부모의 득죄하면
 달직유혈 피가나노 부모근력 쇠히갈가
 압푸자니 눈물날제 부모원망 어이하며
 부모임 부르시면 입의밥을 베타놉코
 다름다름 되답하며 의홀하여 하시거던
 교치훈뜻 두지말고 감격하여 잊지마소
 부모허물 잊거시던 체읍하며 조로간히
 그른부모 올케하면 자제도리 이아인가
 부모에게 명을바다 가산을 담당히도
 일푼전일 입곡을 제님으로 출입말며
 소소한 가간사도 부모에게 먼저물어
 이리하라 하시거던 명되로 시하며
 사불여의 할지라도 부모께 원망말며
 부모님 씨긴말삼 제안다고 거역하고
 미리비록 유익하나 부모마암 편홀소야
 이럴보와 짐작하면 봉양도 허련이와
 쏘편하기 제일이라 옛날의 증씨효자
 되되로 효양잇서 부모봉양 허울적의
 부모친구 되접하자 남은주식 초질적의
 부모의 쏘절바다 잇난음식 잇다하야
 부모친구 논나되려 그도기억 멀친이다
 그아들은 양친할제 찾는음식 업다하여
 다시나와 봉양하니 효성이야 일반이나
 양지흙과 구채양이 효조편의 우열잇다
 실푸다 연소빅야 이니말삼 조세듯고
 부모마암 편키하소 마암편키 웃듬이리
 부모에게 불효하면 몸실조손 부되나코
 부모에게 효도하면 착훈조손 다시난다
 효조가의 효조나고 충신문의 충신나며
 자고로 일너씨니 엇지이니 정영하랴
 나무조식 되난사람 부모은정 아라볼썩
 일즉나가 듯기오면 문의세세 바리보고
 날이지고 안이오면 거리에서 바릴씩의

저년비록 천연하나 부모마암 엇째허리
 익히려 부모은정 빈부가 업건만난
 비하고 공헌스람 자식나아 길러닐제
 머기기와 입피기을 남과갓치 못히여라
 이웃동이 고은오과 나무아히 먹난반작
 영양업난 어린논의 집의와서 그걸찾너
 치워라고 부시떨며 빅곰파라 즉즉울제
 그아히의 부모되이 그간장이 엇더허라
 나모조식 되난스람 그정곡을 어이아라
 부모말삼 거역하고 눈을흘세 보지마라
 부모업씨 삼겨씨며 삼겨난들 절노크랴
 심민이리 몇천연의 효부 만컨마닌
 순갓흔니 쏘잇난가 부완모언 그지업서
 쥬기기를 일삼으되 극진이 호호여서
 호읍민천 허울적의 자원기신 허여씨니
 이을보와 칭각하면 엇지아니 감동허라
 왕상이 효모할제 어무병이 지중허여
 잉어회를 원허사니 엄동설흔 치운날의
 마암이 망극허여 강수의 어름쓰고
 북향스빅 통곡허니 어름우의 이연썩고
 잉종의 효성보소 병든어미 봉양할제
 퍽설분분 동십월의 죽순입혈 원허시니
 효성이 감천허야 눈가온디 죽순나고
 괄거의 효성보소 부모양위 봉양할제
 가산이 빈궁허여 약간어더 드린음식
 어린자식 무식허니 부부서로 의논하고
 심아히을 무들야고 뒤동산 언덕밧퍽
 금헌독을 어더시니 천지감동 아니허면
 이런닐이 잇실손가 진나라 정난이도
 부모일즉 여린후의 효양못흔 훈이되야
 부모얼골 쏘을바다 남걸짜가 등신허야
 지성봉양 허울씨의 안히가 망영되여
 침을질너 피가나고 논의서 눈물흘너
 부모환싱 완연허니 감동천지 아니허며
 등신몸이 피가나랴 송나라 진효부난
 시모가 낙치허여 음식저작 못허시니
 젓절먹겨 효양하고 당나라 소효부난
 도적이 방의드니 시모을 막아안자

소리를 아니하니 도적갓흔 악형인도
 감화하며 물너가고 조로의 사친도난
 퉁니박게 쌀을지고 강신괴 효모할제
 근처의 식수업서 오리박게 물을지니
 천신이 감동하여 집압해 물이나고
 고기날노 물의삼겨 부모봉양 하여씨니
 인력으로 어이하며 노릿조의 효성보소
 구십양친 봉양할제 나히장초 칠십이라
 부모마암 질기고저 아롱웃설 지어입고
 춤을추며 논일씨의 마로우의 업더저서
 어린아로 우름울제 식식기로 히롱하니
 그효성이 었찌하며 회글하더 육적이와
 선침하던 황황이며 기관하던 수창이와
 상분하던 유목누난 효형지도 싹가니어
 천추죽칙 유전하니 나무조식 되난스람
 이를보와 싱각하면 었지아니 감격하리
 향당은 막여치라 닉집노인 섬긴도로
 나무노인 밋쳐서라 존장을 맛닉거든
 문난말삼 되답하되 공순하고 경되하여
 잡된말을 하지마라 입효출공 하난도리
 일로두고 이르미라 제부모의 효성하면
 타인으게 공경하고 제부모의 불효하면
 나무노인 되접할가 형제우익 하난도와
 봉우유신 하난법이 효로뵈터 밋쳐씨니
 효성잇난 저사람은 자연이 알건마는
 불효부제 하난사람 아무리 교훈흔들
 기과천선 쉬울손야 무지흔 싸마구도
 에미반포 하여씨던 하물머 우리사람
 미물마도 못할손야 부모의 사랑흠은
 우마라도 달니보고 부모의 미워흠은
 처조라도 닉쳐씨니 그릇턴 못흔덜사
 부모명영 거역막소 부모자의 적다히도
 마달엇지 효안느며 아달효성 극진하면
 조정저근 부모업다 실푸다 연소빅야
 부모의 망극은을 참아엇지 잇질소야
 조흔음식 만닉거던 부모싱각 언저하고
 험하고 악흔일을 닉흔조 담당하여
 부모에게 알게말고 반갑고 조흔닐은

권효가

부모으게 들니시면 이도또흔 효심이라
부디마암 편케흐소 세상남여 사람드라
이가사을 자세듯소

[현대역]

권효가

청춘소년 아희들아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천지시간(天地之間) 만물 중(萬物中)에 귀(貴)한 것이 사람이라.

사람을 귀타 함은 인간의 오륜(五倫)으로 일렀으니,

오륜을 모를진대, 금수(禽獸)와 같을지라.

귀타 함이 무엇인고. 양친 함께 생존한 이 임금 섬기는 지조 고사하고, 부모 봉양(父母奉養) 먼저 하소.

부모에게 불효(不孝)하면 형제의 정 어이 알며,

어른과 어린이 차례, 친구간의 믿음을 안다 함이 무엇인고. 제 부모께 불효한 놈, 타인과 좋아하며,

제 형제께 화목하지 못하는 놈, 남과 특히 친압(親押)하니,

사람 도리 어이 알랴. 취한 것은 주색(酒色)이라.

재물(財物) 탐내 취한 사람, 천성(天性)인들 온전하며,

주색 방탕(酒色放蕩)하는 사람, 마음속 정인들 어질쏘냐.

한잔 술잔 돌리는 자리에서 친한 정이 특별하고,

하루 밤 잠긴 정에 중한 의리(義理) 형제 같다.

남의 집 귀한 자제(子弟) 그르치기 아주 쉽다.

싼 변 잡기 친한 정이 오래 감을 믿을쏘냐.

푼돈 조금 그르치면, 친한 얼굴 간데없고,

꾸짖으며 패담(悖談)으로 다툼 적에, 피차간에 숨은 허물 날이 지어낼 제 조금의 사정도 전혀 없다.

제 망신은 고사하고, 앓아 계신 부모에게 욕 미치네.

이를 보아 짐작하면, 친구를 사귀어도,

손우(損友) 익우(益友) 삼익(三益) 중에 선(善)과 악(惡)을 가려내어, 맘으로 깊은 정 주고받고, 외면으로 하지 마소.

친구라 하는 것이 오륜(五倫)에 들었으니, 예로부터 친구간의 도리가 소인과 군자 사이 판이하다.

척척하게 좋은 정분 소인 간장(肝臟) 응졸하고,

당당함이 물 같아도, 군자의 속마음 바뀔 없다.

친구 도리 어렵거든, 하물며 이내 사람

부모에게 효도함이 온갖 행실 중에 으뜸이라.

날아서 길러주신 부모 은정(恩情) 평생토록 갚고자 하였지만, 하늘같은 부모 은혜(恩惠) 끝이 없다.

부모 봉양(奉養)하는 도리, 집안 형편대로 할지라도 힘과 마음 다하여라.

부모 봉양(奉養)한다 하고, 내 집에 없는 재물(財物) 여간 많은 집안 재산 마구 팔며, 동서로 여러 군데 빛을 내어,

진작 갚지 못한 후에, 구차하고 욕된 말이

부모 귀에 들리시면, 부모 마음 어찌하랴.

이를 보아 생각하면, 뜻 편키가 제일이라.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맛이 좋고 잘 차린 음식인들 살로 가랴.

자식 날아 길러내면, 부모 은정(恩情) 안단 말이 이를 두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분명하다.

오회라 우리 선친(先親), 나와 같은 불초자(不肖子)를 늦게야 만생(晩生)으로 얻었으니, 산해(山海)같은

부모 은정(恩情) 오죽이야 귀하게 길렀으랴.
 아홉 살 어릴 때에 배움에 들어서서,
 학문을 힘써 할 제, 은혜 베푼 깊은 정을
 마음속에 품어두고, 아침저녁 가르칠 적,
 성한 때에 병날세라, 더운 날에 추울세라
 남의 아희 못할세라 부모 욕심(慾心) 이러하여
 성을 내어 꾸짖으면, 알던 일도 도로 잊어,
 무지(無知)한 어린 소견(所見), 겁이 나서 민망터니,
 자란 뒤에 생각하니, 부모 마음 내 알겠노라.
 부모 마음 원한 일을 어찌하여 알아보며,
 부모 생전(生前) 중한 은정(恩情) 어이하여 갚으리까.
 편모(偏母)를 모시다가, 병정(丙丁)이 드는 해에 홀로 흥년 만나
 집 살림 탕진(蕩盡)하고, 남북으로 흩어질 제,
 흰당(萱堂)의 백발(白髮) 어머님 어린 동생 부탁하고,
 구차한 이내 신명(身命), 남의 집에 몸을 팔아
 남산(南山)에 받을 갈 제, 오자가(吾子歌)로 노래하며,
 후원(後苑)에 남걸할 제 사모가(思母歌)를 슬피 불러,
 칠판 년을 분주(奔走)하여 부모 봉양 어찌하리.
 용준한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 만분(萬分)의 하나도 못 다 갚네.
 변변치 못한 음식 부족하여 부모 생전(生前) 여한(餘恨)이니,
 많고 많은 녹봉이 있다한들, 부모 없이 무엇 하랴.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쓸데없는 이내 나이,
 오십 세가 다 넘어서 자식 낳아 길러보니,
 부모 생각 새로 많다. 슬프다 이 세상에
 오류이 있건마는, 부자의 몸 빛냄을 채 모르고,
 형제간에 우애함은 간데없고, 어른 아이 차례 있고 벗 사이의 믿음과 효도하고 공손하며 우정을 다하는
 도(道), 아는 사람 몇몇인고.
 인륜을 저버리고 풍속을 해치는 일, 때와 날이 달라감이
 세상 도리 생각하면 어이 아니 한심한가.
 부모 두 분 계신 사람, 부디 효성으로 봉양을 힘써 하소.
 장기바둑 일을 삼아, 부모님 받들기를 불고(不顧)하며,
 재물 처자(財物妻子) 사소히 해 부모 마음 썩히시니,
 선정(善政) 형벌(刑罰) 중한 죄에 불효함이 가장 크다.
 옛사람이 책을 지어 선악(善惡)의 어려움과 엄함을 기록하매,
 후생(後生)들은 이걸 배워, 악한 행실(行實) 다시 고쳐
 착한 사람 본을 받아, 배우다가 못 미쳐도,
 어리석고 못난 사람 면하리라.
 요임금 같은 화석 운 없는 우리 사람, 사람마다 어찌 착착하며, 공자(孔子)나 맹자(孟子) 아닌 지금 후

생, 사람마다 성현(聖賢)되라.

타고난 본디 성정(性情) 잃지 말고, 행실을 밝게 닦아 성심(誠心)대로 힘을 쓰면 한 몸의 효도하고 공손함은 대대로 좋아서 미쳐가고, 한 집의 효도하고 공경함은 온 천하가 다름소냐.

하물며 이내 한 몸, 부모 혈통 받아나서,

내 몸의 천한 욕(辱)이 부모 몸에 먼저 미치고,

몸에 귀(貴)한 일은 부모 몸에 영화(榮華)된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자제 도리(子弟道理) 행할 일이

출입할 제 먼저 여쭙고, 놀러가도 처소(處所)를 알려둔다.

무사(無事)하다 생긴 중한 병과 갑자기 급한 일로

바쁘게 다니면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부모 봉양(奉養)하는 도리,

천성(天性)대로 못하여도, 듣고 본 바 본을 받아

극진히 봉양함을 힘써 하면, 타고난 효자와 다름소냐.

성현 군자(聖賢君子)의 효성(孝誠) 말씀, 사기(史記)에도 전하였으나, 이를 보아 생각하면, 자제 도리(子弟道理) 이 아닌가.

첫닭 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질 세수하고 빠르게 재촉하여,

부모 처소(處所) 들어가서, 음식과 추운 겨울 달걀로써

부드러운 언사로 묻자오며 부모에게 죄 범하면

회초리로 매 맞고 피가 나도, 부모 근력 쇠해갈까,

아프잖아 눈물 날 제, 부모 원망 어이 하며,

부모님 부르시면 입의 밥을 뱉어놓고,

다름다름 대답하며,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거든

교만한 뜻 두지 말고, 감격(感激)하여 잊지 마소.

부모 허물 있으시면 울면서 자주 여쭙워

그른 부모 옳게 하면, 자제 도리(子弟道理) 이 아닌가.

부모의 명(命)을 받아 집 살림을 담당해도,

한 푼의 돈, 한낱 곡식 거두기도, 제 마음대로 하지 말며,

소소한 집안일도 부모에게 먼저 물어,

이리하라 하시거든 명(命)대로 모셔 하며,

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더라도, 부모께 원망 말며,

부모님 시킨 말씀 제 안다고 거역(拒逆)하고,

미리 비록 유익(有益)하나, 부모 마음 편할소냐.

이를 보아 짐작하면 부모에게 봉양(奉養)도 하려니와,

뜻 편케 함이 제일이라. 옛날의 증삼(曾參) 효자(孝子),

대대로 효성으로 봉양하여, 부모 봉양하올 적에,

부모 친구 대접하자, 남은 음식 찾을 적에,

부모의 뜻을 받아, 있는 음식 있다 하여,

부모 친구 나눠드려, 그도 역시 아버이를 기쁘게 함이로다.

그 아들은 부모를 봉양할 제, 찾는 음식 없다 하여

다시 나와 봉양하니, 효성(孝誠)이야 일반이나,
뜻과 몸 기르는 바가 서로 효자편(孝子篇)엔 나옴과 못함 있다.
슬프다 나이 어린 우리들아, 이내 말씀 자세히 들어보고,
부모 마음 편케 하소. 맘 편함이 으뜸이라.
부모에게 불효하면 못쓸 자손 따라 날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착한 자손 다시 난다.
효자 집에 효자 낳고, 충신 집에 충신 나며,
예로부터 일렀으니, 어찌 아니 확실하라.
남의 자식 되는 사람, 부모 은정 알아볼까.
일찍 나가 늦게 오면, 문에 서서 바라보고,
날이 지고 아니 오면 거리(距離)에서 기다리며 바랄 때에,
저는 비록 천연(天然)하나, 부모 마음 어떠하리.
불쌍해한 부모 은정, 빈부(貧富)가 없건마는,
비천(卑賤)하고 궁(窮)한 사람, 자식 낳아 길러 낼 제,
먹이기와 입히기를 남과 같이 못하여라.
이웃 아이 고운 옷과 남의 아희 먹는 반작
양보 없는 어린 누에 집에 와서 그걸 찾네.
추워라 부스스 떨며, 배고파라 죽죽 울 제,
그 아희의 부모 됨이 그 간장(肝腸) 어떠하리.
남의 자식 되는 사람, 그 간곡한 정 어이 알랴.
부모 말씀 거역하고, 눈을 흘겨보지 말라.
부모 없이 생겼으며, 생겨난들 절로 크랴.
백성 생긴 이후 몇 천 년에, 효도하는 며느리 많건마는,
순임금 같은 이 또 있는가. 아버지 완강하고 어머니의 꾸짖음 그지없어, 죽이기를 일삼되, 극진(極盡)
이 효도하여 하느님께 울면서 외칠 적에 스스로 일어남을 원했으니,
이를 보아 생각하면, 어찌 아니 감동하라.
왕상(王祥)이 효심으로 어버이를 그릴 적에, 어머니 병 심하여서 잉어회를 원하시니, 눈이 오는 추운
날에
마음이 그지없어 강물의 얼음 깨고,
북쪽 향해 절을 하고 통곡하니, 얼음 위에 잉어 튀고,
맹종(孟宗)의 효성 보소, 병든 어미 봉양할 제,
흰눈 날리는 겨울 시월 달에, 죽순 잎을 원하시니,
효성이 하느님을 감동시켜 눈 속에서 죽순 나고,
곽거(郭巨)의 효성 보소, 부모 두 분 봉양할 제,
살림살이 빈궁하여 약간 얻어 드린 음식,
어린 자식 먹을 것 없게 되니, 부부 서로 의논하고,
산 아희를 묻으려다, 뒷동산 언덕 밑에서
금 한 덩이 얻었으니, 천지(天地) 감동 아니 하며,

이런 일이 있을 쏘냐. 후한(後漢)의 정란(丁蘭)이도
 부모 일찍 여힌 후에, 효양(孝養) 못해 한이 되어,
 부모 얼굴 본을 받아 나무 깎아 사람 형상 만들어서
 지성으로 봉양할 때, 아내가 망령(亡靈)되어,
 침을 찔러 피가 나고, 눈에서 눈물 흘러 부모 다시 살아남이 확실하니, 천지(天地)를 감동하게 아니하
 며,
 등신(等神)의 몸에서 피가 나랴. 송(宋)나라 진 효부(陳孝婦)는 시어머님 이가 빠져 음식 씹기 못하시
 니,
 젓을 먹여 효심으로 봉양하고, 당(唐)나라 소 효부(孝婦)는 도적(盜賊)이 방에 드니, 시어머님을 막고
 앉아
 소리를 아니 하니, 도적 같은 악한 일 하는 이도
 감화(感化)되어 물러가고, 자로(子路)의 어버이 섬긴 도리, 백리 밖에 쌀을 지고, 강신과 효심으로 어버
 이를 그럴 적에 근처에 식수(食水) 없어 오리 밖에서 물을 길러오니,
 하늘의 신령께서 감동하며, 집 앞에서 물이 나고,
 고기가 날마다 물에 생겨 부모 봉양하였으니,
 인력(人力)으로 어이 하며, 노래자(老萊子)의 효성(孝誠) 보소,
 구십 세의 두 어버이 봉양할 제, 나이 장차 칠십 세지만,
 부모 마음 즐겁게 하고자 아롱대는 무늬 옷 지어 입고,
 춤을 추며 노름할 때, 마루 위에 엮드려져
 어린아이 울음 울 제, 새 새끼로 장난하니,
 그 효성이 어떠하며, 회골(懷橘)하던 육적(陸績)이와
 선침(扇枕)하던 황향(黃香)이며, 기관하던 수창이와
 상분(嘗糞)하던 유검루(兪黔婁)는 효행의 도(道)를 닦아내어
 길이 남을 역사책에 전했으니, 남의 자식 되는 사람
 이를 보아 생각하면 어찌 아니 감격하리.
 시골 마을에선 나이가 제일이라, 내 집 노인 섬긴 도(道)로
 남의 노인 미쳐서라. 웃어른을 만나거든
 묻는 말씀 대답하되, 공손하고 공경하여 접대하고, 잡된 말을 하지 말라.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선 어른께 공손한 도리, 일로 두고 이름이라.
 제 부모께 효성하면 타인에게 공경하고, 제 부모께 불효하면 남의 노인 대접할까.
 형제 우애(友愛)하는 도와, 벗과 믿음 있는 법(法)이 효로부터 미쳤으니, 효성 있는 저 사람은 자연히
 알건마는, 효도 공손 아니 한 사람, 아무리 교훈한들, 허물 고쳐 착하게 됨 쉬울쏘냐.
 무지한 까마귀도 어미에게 은덕을 보답커든,
 하물며 우는 사람 동물만도 못할쏘냐.
 부모를 사랑함은 마소라도 달리 보고, 부모를 미워함은 처자(妻子)라도 내쳤으니, 그러하던 못한들,
 부모 명령 거역 막소. 부모 사랑 적다해도,
 아들 어찌 효도를 아니 하며, 아달 효성 극진하면
 사랑 적은 부모 없다. 슬프다 어린 우리들아,

부모님의 그지없는 은혜를 차마 어찌 잊을쏘냐.
좋은 음식 만나거든, 부모 생각 먼저 하고,
힘하고 악한 일을 내 혼자 담당하여
부모에게 알게 말고, 반갑고 좋은 일을
부모에게 들리시면 이도 또한 효심(孝心)이라,
부디 마음 편케 하소.
세상 남녀 사람들아 아 가사를 자세히 들소.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